

체급 키우기 나선 AI·데이터기업들... 줄줄이 IPO 출격

트윈·마인즈랩, 코스닥 상장 앞두고
루닛, 기술성 평가 최고등급 통과
클라우드웍스, 상장 준비 속도

인공지능(AI)·데이터 기업들이 줄줄이 IPO(기업공개)에 나서고 있다.

트윈은 오는 17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마인즈랩도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또 루닛은 지난 5월 기술서평기를 통과한 후 내년 초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며, 코난테크놀로지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고 내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전략이다. 또 클라우드웍스도 최근 200억 규모의 프리-IPO를 완료하고 내년 코스닥 시장에 나선다.

17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AI 검사설비 기업 트윈은 8~9일 진행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에서 2266.84:1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공모물량 122만주 중 25%인 30만5000주에 대해 청약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공모가가 밴드의 상단(1만7800~2만400원)을 초과해 2만3000원에 확정됐다. 수요예측은 국내외 1672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1627.34대 1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30.72포인트(1.03%) 오른 2999.52 장을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트윈은 2010년 1월 설립돼 AI 검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비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 중심이었지만, 최근 AI 기반 검사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광학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 등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제품에 대한 형태 불량률 검출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23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AI 인간 전문기업인 마인즈랩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결과, 최종 경쟁률 89.971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배정물량인 15만 1115주에 대해 1359만 6000주가 접수됐다. 이에 앞서

실시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97.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밴드(2만6000~3만원)의 상단인 3만원으로 확정했다.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는 "마인즈랩은 인간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현실세계와 메타버스를 통해 전 세계 가정과 개인에게까지 보급해 인간은 보다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설립된 마인즈랩은 A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커넥터인 'maum 오케스트라' 플랫폼을 통해 자체 개발한 AI 엔진 40여 개는 물론 고객 맞춤형 AI 고객 상담원, AI 돌보미, AI 경비원, AI 속기사 등 인공지능을 제

작·공급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은행, 하나은행, 현대해상 등이 있으며, 최근 신한은행 지점 5곳에서 인공지능 은행원이 접목된 디지털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의료 AI 기업인 루닛은 지난 6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최고 등급으로 통과했으며, 이달 중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 주권사로는 NH투자증권을 선정했다.

루닛은 한국기업데이터와 이크레더블에서 모두 AA 등급을 받았다. 또 상장 전에 720억원 규모의 프리-IPO를 추진 중이다.

2013년 8월 설립된 루닛은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흉부 엑스레이 영상으로 폐암, 결핵 등 폐 질환을 진단하는 '루닛 인사이트 CXR'과 유방암 진단을 보조하는 '루닛 인사이트 MMG'를 보유하고 있다.

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한국기업데이터와 나이스디앤비에서 AA와 A등급을 받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후 내년 중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다.

1999년 설립된 코난테크놀로지는 '사람처럼 보고,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AI'를 실현하고 인간의 언어와 동영상 속 의미를 이해하는 AI 기술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연평균 18%의 매출 성장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AI 학습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클라우드웍스는 한국투자증권을 주권사로 선정해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중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라우드웍스는 최근 프리-IPO를 진행해 7개사의 신규 투자와 클라우드웍스의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2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에 앞서 17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와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바 있는데, 누적 투자금액은 약 320억원에 달한다.

2017년 4월 설립된 클라우드웍스는 AI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며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AI 학습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 최근엔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과 '직 위키'를 매칭해주는 HR 플랫폼인 '클라우드잡스'를 출시했다.

/채운정 AI 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가상자산 '과세' vs '유예'... 국회서 논의

준비 안된 과세... 대상 불명확 우려
1년 유예에 대한 의견 무게 쏠려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결정이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년 유예에 대한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난해 국회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현행 소득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세법에는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소득세를 20%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코인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했다. 전산 시스템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과세 시점이 다가오자 여야는 1년 유예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과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결정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유도이미지

수리가 된 거래소는 3곳에 불과하고 ▲과세를 위한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상태인 데다 ▲다양한 토큰 모두 과세 대상 포함 ▲대체 불가 토큰(NFT), 디파이(탈중앙화금융) 거래 포함 등 과세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의 투자자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과세 1년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조세의 기본은 신뢰로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과세는 반대"라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라며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운데 하나인 업비트의 회원수는 지난 10월말 기준 890만명이다. 이 중 전체 2030세대가 6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비트코인이 최고가인 8200만원선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다시 불어오면서 이들의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치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에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자꾸만 정부한테 유예하는 것을 인정하고 유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일정대로 준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같은 만큼 1년연기에 무게가 실린다. 과세연기나 공제상향 중 하나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연말 대목 잡아라"... 불 붙은 쇼핑대전

11월, 1년 중 온라인쇼핑 건수 최대
연말 최대 규모 세일 행사 봇물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에 패션업계의 11월 온라인 쇼핑대전에 불이 붙었다. 오는 26일에 해당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미국에서 비롯된 최대 쇼핑일)부터 연말까지 업계 성수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여신업계에서는 이번달 카드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온라인 쇼핑 증가추세와 올해 소비 회복세 추이가 반영돼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1년 중 온라인쇼핑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11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명 패션 플랫폼 중 하나인 W컨셉은 연말 최대 규모 세일 행사를 준비해 일명 '블프' 수요 잡기에 나선다.

W컨셉은 오는 28일까지 '웨이크업 포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실시하며 패션·잡화·뷰티 등 주요 카테고리에서 1000여 개 주요 브랜드 상품을 한데 모아 최대 95% 할인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패션, 잡화 카테고리에서는 MD가 선별한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코트, 니트 등을 특가에 만나볼 수 있는 '블랙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한정으로 인크, 모한, 마뎡김 등 W컨셉의 대표 브랜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탑 브랜드' 기획전도 준비했다.

명품 브랜드를 특가에 만나볼 수 있는 '럭셔리 대전'과 집점 브랜드의 리퍼브(재공급) 상품을 최대 8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리퍼브 세일'도 전개한다.

최주희 W컨셉 상품기획담당 상무는 "올해는 위드 코로나 분위기로 소비심리 회복이 기대돼 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미리 연말을 즐길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의 혜택'을 준비했다"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통해 득템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의 통합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은 이달 15~28일 해외 프리미엄 명품 브랜드 등을 최대 반값에 판매하는 '더 블랙 위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바이어가 직수입한 해외 명품 편집숍인 롯데탑스, 스몰트, 스티커바 및 롯데면세점도 행사에 참여해 가방, 운동화, 시계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롯데쇼핑 측에 따르면, 롯데온은 해외 직구 수요를 예측하고 지난 6월 전담 조직을 신설해 관련 셀러 및 상품 강화에 나선 바 있다. 롯데온은 해외 직구 올해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9배 가량 신장한 수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리복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리복 제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리복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클래식 레더 레거시, 인스타그램 퓨리, 나노 X1, 윈터 자켓 등 꾸준히 사랑받는 베스트셀러부터 올해 출시된 제품까지 최대 7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